

### 종립학교를 가다

(10) 광동여자고등학교

# 전교생이 한글 반야심경 술술

## “4C 교육이론 바탕 솔직·긍정적 인간 길러”



광동여고 윤동호 교장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윤동호 교장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한글반야심경 보급은 광동여고만의 자랑이라며 웃음 짓는다.

인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 생각하는 그는 사람을 정직하게 보는 것, 긍정적으로 보는 것, 나보다 남을 앞세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 교장은 또 4C 교육이론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4C 교육이론이란 Computer(컴퓨터 교육), Communist(세계화 및 영어교육), Courtesy(예절교육), Credit(신용 교육)을 뜻한다. 이를 통해 정사(정)에 필요한 여성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윤 교장은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경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이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인다는 뜻으로 작은 것을 실천하는 세심한 마음을 말한다.

### 교법사실에서

유동호·양동효 교법사

## “인생설계 돕지요”

“고등학교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교법사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법회와 설법지>에 경전 자료를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는 광동여고 유동호(사진 위)교법사는 학생들이 교학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중생에 종이되라”라는 경구를 좋아한다는 그는 또 학생들에게 하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양동효(사진 아래)교법사는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대개 설법을 했듯이 요즘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부처님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과 이성·진로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개설된 광동여고 불교학생회 회원 및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 불사조(불교사랑모임 cafe.daum.net/buddhassana) 카페에서 사이버 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의정부 지역은 격전지로 그 아픔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다.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특히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거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팔며 살아가는 전쟁고아들은 사회적 문제였다.

광동여자고등학교는 1955년 전쟁고아를 비롯해 불

행한 청소년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양주직업소년학교에서 출발했다. 이후 64년 의정부고등학교, 73년 광동상업전문학교로 발전을 거듭해오다 80년 광동여자고등학교로 개명해 현재 ‘미래교육자 현모양처의 산실’, ‘지역 최고 명문 사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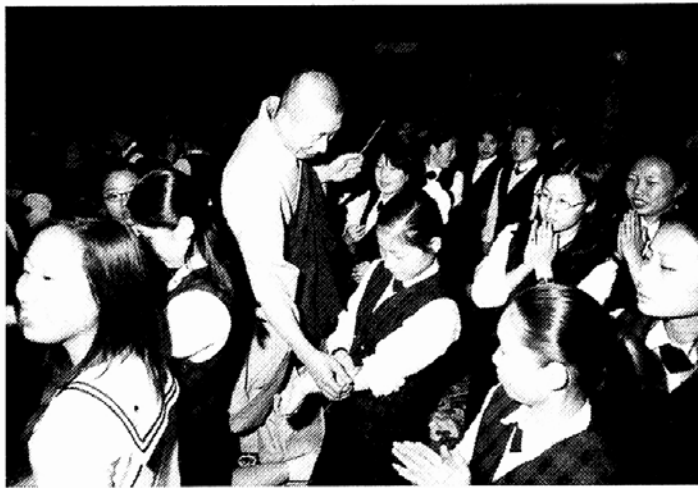
광동여고는 ‘자비로운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자아발전, 민족정신이 투철한 참된 인간상 창조, 신의를 생활신조로 하는 올바른 인격완성’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교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입정시간. 매일 1교시와 5교시 시작 전 5분간 실시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입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삶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다. 입정시간은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한편 수업분위기를 정착, 집중력 강화로 인한 학습의욕 고취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교육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벌제 운영의 활성화 또한 광동여고가 내세우는 독특한 교육프로

### 하루 두차례 입정...정서순화 체벌대신 상벌제 운영

그램, 체벌 없는 명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시된 상벌제에는 학생 스스로 생활을 반성하고 성실한 여학생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바람직한 교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기본 질서교육의 충실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학생들의 인격 완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광동여고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단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교실에 멀티비전, 컴퓨터, OHP, 빔 프로젝터 등 첨단 장비를 구비했고, 전용선을 설치해 사이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매주 1회 교사 연수를 실시해 컴퓨터



광동여고는 이사장 봉선사 주지 일연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현재 청보리 1070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봉족 기념 수계법회 모습.

### 전용선 구축 사이버 교육 진학 100% 최우수교 선정도

터 관련 교재 도구 제작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홈페이지(home.dreamx.net/kdghs)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일정 및 가정통신문 게시, 의견수렴 등 사이버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매년 학기초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도서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50권씩 구입하여 책꽂이와 함께 학급에 배부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책 둘러보기, 독서감상문 쓰기, 독서토론 권장하여 독서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도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독서지도도 펼치고 있다. 독서교육은 영상매체에 익숙

한 아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광동여고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은 99년 2년제 대학을 포함해 진학률 100%, 올해 수시모집에서 연세대 성균관대 등 명문대학 다수 합격,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평가 최우수교로 선정 등으로 그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다.

한편, 종립학교로서의 교학활동도 왕성하다. 역경사업에 평생을 바친 윤스님이 설립한 학교답게 전교생이 한글대장경을 모두 외우고 있고 매년 한차례 한글반야심경 낭독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광동중·고교와의 연합법회 및 수계법회, 봉족법회식 제등행렬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파라미터 불교학생회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 “통일이여! 어서 오소서”

대불청 ‘6·15선언 실현’ 삼보일배 행진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정토회, 전국 불교운동연합 등 4개의 교계 청년 단체 회원 70여명은 15일 탑골공원에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도 삼보일배 대행진’을 개최했다.



전국불교운동연합 대외협력국장 법선 스님의 ‘삼보일배 의미설명’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조계사 청년회 정준호 회장의 동침 결의문 발표에 이어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부회장의 발언문 보일배를 하고 있다.

특히 박법수 부회장은 발언문을 통해 “한민족 자주통일의 열기가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만큼 청년불자들이 앞장서 불교계 진보 역량을 한데 모아 평화적인 통일과업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탑골공원을 출발해 인사동을 거쳐 조계사까지 ‘6·15 공동선언 실현’이 새겨진 피켓

을 들고 세 걸음 옮길 때마다 일배씩을 했다. 정우식 대불청 정책기획실장은 “삼보일배는 나태해진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수행법”이라며 “은 몸에 힘이 들고 무릎이 아팠지만 청년불자로서 통일의 의지를 재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환희를 표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이선옥의

### 선무 건강법 ⑫

#### • 스트레칭 •

1. 손을 단전에 갖다놓고, 양쪽 발을 자연스럽게 벌이고 앉아서 단전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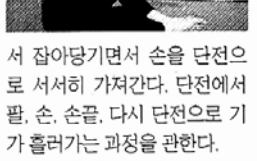
2.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을 향문 뒤쪽으로 끌어당긴다. 다시 이완하면서 단전을 하복부로 되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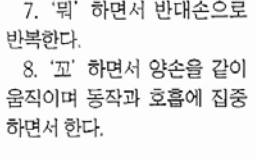
3. ‘이’ 소리를 내면서 단전하복부의 기를 오른손으로 보낸다. 어깨쪽으로 팔을 벌리면서 척추를 곧바르게 펴고, 팔이 움직이는 과정을 마음으로 쫓아간다.



4. 어깨편에 다다른 팔은 손목을 천천히 밖으로 돌리면서 풀어주면서 앞으로 가져온다.



5. 단전에 집중한 상태에서 손목을 안쪽으로 서서히 돌려서 기를 손끝으로 보낸다.



6. 팔을 구부러 자기를 향해



서 잡아당기면서 손을 단전으로 서서히 가져간다. 단전에서 팔, 손, 손끝, 다시 단전으로 기가 흘러가는 과정을 관한다.

7. ‘뽀’ 하면서 반대손으로 반복한다.

8. ‘꼬’ 하면서 양손을 같이 움직이며 동작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한다.

## 나라사위·무용반 ‘예술의 꽃’ 그린넷 자연보호 계몽 ‘눈길’

동아리 **탐방** 광동여고는 다른 학교의 달리 동아리 활동이 왕성하다. 특별활동에 개설된 동아리만도 50여개.

이민영 학생을 주축으로 7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무용반은 지난해 창단된 신생 동아리지만 올해 5월 13일 열린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을 수상, 교내외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자연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결성된 ‘그린넷’은 자연 실태 조사와 환경 보호를 위한 계몽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만도 이미 중앙청 수질조사, 조류탐사, 철원 제2광굴 및 고석정 조사, 시화호 탐사, 경희교 생태탐사를 다녀왔다. 15년 전통의 사물놀이 동아리인 나라사위는 1996년부터 경기도 학생예능 발표대회 사물놀이 부문에서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도민문화축전 공개 행사, 한미연합사단 부대초청공연, 부처님오신날 시가행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의정부시청 청소년자원봉사단에 등록해 봉사자로서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불교학생회는 오랜 전통과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학생회는 정기법회, 수련회 등은 기본이고 108배 참회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명반, 답사반, 4-1반, 신문편집반 등이 유명하다.

지리산자락 우주추천동 신비의

## 다슬기

###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당담과 비밀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우주 추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허공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원거 97리니를 얻은 뒤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속에 물이 든 빈 황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거가 다 타들어 가기 까지 꼬막 8-9리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올리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쿨달리니, 미간과 락피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강의력, 수면장애 개선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포함) 녹음장치, 녹음, 시뮬레이션/이력 미러모니터

오라클무선 (미국 오라클시스템/중국 OEM) 광안정 (광안정, 광역, 보라색, 은색/미국 마이크로칩사) 다이나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칩사)

### 메가플러스 명상기의 특징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올리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올리트는 6개 상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램의 체감을 알이나 문자가 0년 에너지제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클무선의 진동은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거나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강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개발) 소책자와 카디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1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강의개요

1. 개강일시	2001년 9월 5일(수) 오후 2시, 7시
2. 교육장소	동산불교회관 (조계사 옆)
3. 모집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간반) 오후 7시 (야간반)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 (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대한불교 동산반야회